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에는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지만
부흥하면서 점차 교만해짐으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께 책망을 들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잃고
회복하지 못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고전 3:16).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교회, 곧 주님의 몸된 성전을 옮기신다는 것이니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비록 성령은 받았을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죄악 가운데 세상과 짝하여 살아간다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이 소멸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계속 회개하지 않고 돌아키지 않으면 결국 성령이 거두어지게 됨으로 촛대가 옮겨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뿐 아니라 교회적으로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부흥이 멈추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끊기니 자연히 영적인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한 번 성령의 역사가 끊기면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교회에는 이내 사단이 역사하여 분열과 다툼이 생기고 결국 휘파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해도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면 이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더더욱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벧전 4:7).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신속히 회개하고 돌아켜서 결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니콜라는 “영은 깨끗하고 죄가 없으며 성결한 것이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몸에 죄가 있기 때문이며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죄와 무관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실 때 몸은 썩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므로 육체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해도 다시 죄를 지어 나가면 성령이 소멸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며,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조차 없다고 하십니다(히 6:4-6).

니콜라의 주장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변질시켜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수고와 인내가 따르는데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고 가르친다면 아직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유혹받기 쉽겠습니까? 열심히 죄를 버려 가다가도 미혹되어 다시 세상으로 빠질 수 있지요.

교회 안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동조하는 세력이 생기면 금세 죄악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교묘히 변질시켜 성도들을 미혹하고 죄로 빠지게 하는 모든 일이 니콜라 당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높고 성령이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이라도 온전히 영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사단의 역사를 받아 진리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니콜라 당의 행위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미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잘못 분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를 판단하거나 휘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교회를 이단으로 판단 정죄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의 담을 쌓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후 단순히 지식으로만 담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마음에 심어 행함으로 싹을 내고 열매를 거두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금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마음에 새겨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은 낙원을 비롯하여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천국 곳곳에 있는데 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여기서 낙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처소가 구분되어 있습니

다(『천국』 책 참고). 낙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한편 강도가 회개함으로 구원받아 가게 된 처소이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돌아킬 때는 간신히 구원받게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즉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낙원에 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천국 전체를 포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교회 위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천국에 들어가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책망하신 부분이 혹여 내게는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고 만약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어디에서 떨어지게 되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처음 사랑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와 치유의 역사로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기적의 현장으로 만든 '이재록 목사 초청 2006 뉴욕 연합대성회', 이 성회는 위성과 공중파, 케이블 방송을 통해 세계 200여 개국에 생중계됐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GCN”

☆ ☆ ☆ **가정의 달 5월** ☆ ☆ ☆

☆ **가정의달 '특선영화'** ☆

눈에 덮인 진실 / 퀘바디스
나사렛 예수 / 십계 / 사랑의 원지탄

☆ **어린이 애니메이션** ☆

3D 애니메이션 '당나귀 울리의 모험' / 예수

☆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선(뜻 편) / 영적인 어린이
이재록 목사 신앙간증 '신앙생활 쉽게하기 1.2'

☆ **하나님의 권능과 치료받은 간증** ☆

권능6 /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 **가정이 함께하는 채널, GCN!!** ☆

☆ **놀이동산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복을 전해 드립니다.** ☆

☆ **위성 및 인터넷TV 신청 안내**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1577-2073**

MANMIN tv